



정세와 동향

제94호

2016년 8월 20일 발행

홈페이지: <http://napo.jinbo.net>

이메일: napo@jinbo.net

발행처: 노동전선



대중조직 정치세력화의 기본 방향: 노동조합(민주노총)은 정치조직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세력화는 물론 민주노동당 건설의 경험이다. 그로부터 20년의 역사가 경과했으며 현재는 목도 하듯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몰락과 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성격상 자본주의 체제내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금노예 상태인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노동자 권력쟁취를 위한 정치세력화 방침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은 대중조직(노동조합)으로서의 고유한/독자적 투쟁과 특정한 정치행위를 통해서이다.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당건설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잘못된 설정이다.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떠맡는 것일 수는 없다. 노동조합(대중조직)이 정치조직을 관장/리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퇴행적인 발로일 뿐 바람직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일이다.

다만 구체적 정세 아래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예컨대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총선 공투본'을 성립시킨 것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정세와

'진보/좌파' 세력의 상태를 감안할 때 201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치행위가 매우 긴급하게 요청/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다. '총선 공투본'의 성과와 의의를 살려 201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은 '진보/좌파'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행위를 할 준비와 조직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정당건설이나 재편은 기본적으로 정치조직 자신의 과제이며 민주노총은 그 과정에서 적당하고 적합한 역할을 찾으려 한다.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

현재 대중조직을 포함하여 진보/좌파 내에서 핵심 쟁점은 민주노총 주도의 정당건설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정당 통합 및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민주노총 8·22 정책대대를 앞두고 제출되고 있는 정당건설 방안)

이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노총이 지난 민주노동당 창당 때와 같은 역할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조건에서 만약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특정 정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민주

노총에서 지난날의 진보정당 오류를 짚으며, 사전적으로 패권적 당운영 극복, 현장중심성 강화, 의회주의 우경화 극복 등의 과제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전히 새롭게 건설될 진보정당(또 하나의 진보정당이 되겠지만)의 몫이다. 정당이 다수를 점하는 정파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들 다수정파가 지난날의 못된 역사를 반복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건설한 정당이 한국사회 계급구성과 모순을 허구적으로 분석하여 노동계급 중심성보다는 노농민의 병렬적 연대를 강조하거나, 변혁의 전략을 노동해방과 자본주의 철폐로 설정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개량과 정치개혁(야권연대 포함)에 치중하고, 당내의 민주주의 보장은 말뿐 다수파의 전횡이 일상화되는 운영이라면, 이는 노동자계급과 역사에 대한 더 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이렇게 흘러갈 개연성은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낡은 진보정당 건설 방안은 낡은 방안일 뿐 새로운 정치세력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당건설을 민주노총이 주도하게 된다면 이는 '진보대통합(당)'을 위한 대중적 명분 혹은, 민주노총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단결과 통합'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오히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만 증폭시키고 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조장할 뿐이다. 16년 하반기 투쟁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피하지는 것이 아니다. 대중조직이 '정당건설'을 기조로 못 박는

순간 단결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17년 투쟁과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정작 해야 할 역할은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지금보다 더욱 수렁에 빠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역량조차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단일정당'(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단결과 통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분화의 역사가 이를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진보/좌파'의 현 상태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성과가 미미한 것이 정치세력의 분화 때문도 아니다. 지난 세계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보더라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단일정당'(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자체가 발전이나 진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입장과 노선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며 불가피한 현상이다. 또한 대중의 입장에서 정치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며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으로서 이를 오히려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배타적 지지방침'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 엄존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201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당문제는 그 결과 위에서 또는 그 과정에서, 그것도 정치조직 사이의 논쟁과 논의를 매개하면서 부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 **노동전선**

공공부문노동자 총파업에 나서다!

—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투쟁은 모든 노동자가 함께 나서야 할 투쟁!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수출부진으로 인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강하게 진행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급속사업장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8월 말 여야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고, 체계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사드배치,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한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를 강제하려고, 상반기 불법 이사회 등을 거쳐 통과시키고, 노사 간 합의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하반기 공공운수노조는 ▲교육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개선과 예산확보, ▲화물연대본부,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법개정 쟁취 투쟁을 전개하고, 9월 27일부터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기관노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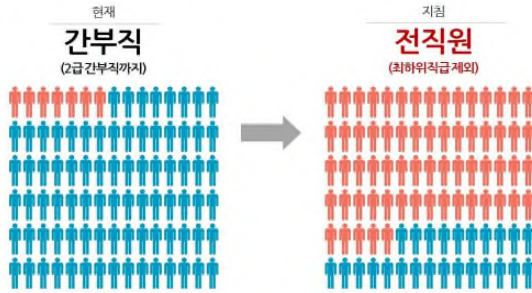
무기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임금결정권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영화 저지투쟁의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부터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과, 취업규칙 일방개정, 쉬운해고(퇴출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전체 노동자에 확산하고,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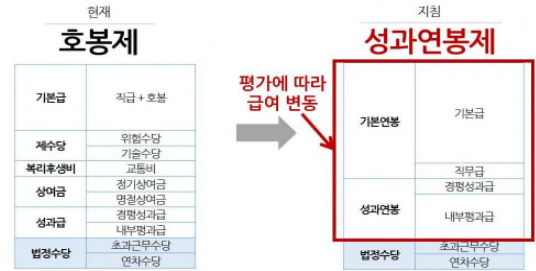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임금 차등을 강제할 수 있고, 인센티브/페널티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퇴출제와 연계해 말 그대로 쉬운해고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지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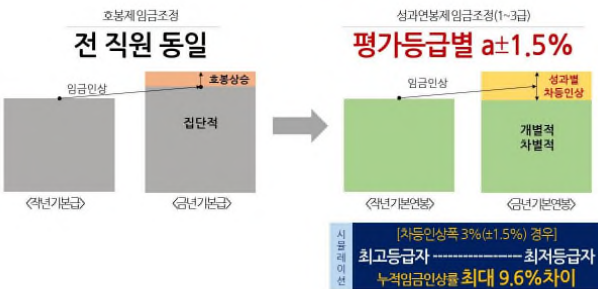
1)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2) 임금 구성 단순화, 평가에 따른 변동 확대



3) 호봉제 폐지, 매년 개인별 임금 차등 인상



4) 성과연봉 비중 늘고, 차등폭 늘어



성과퇴출제 저지투쟁은 공공부문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노조들부터 무력화시키고, 이를 전체 산업으로 확산시키면서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9월 27일부터 진행되는 공공기관노조들의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진행하고,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27 공공운수노조 파업은 물론,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가 9월 말 공동파업 돌입(금융노조(9.23.), 보건의료노조(9.28.))하고,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회의(전교조, 공무원노조 포함)는 총궐기 투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9·27 총파업에 약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5개 노조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으며, 노조의 전체 역량을 이번 파업에 총력 집중할 방침이다.

성과퇴출제 도입은 공공성·안전 파괴,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은 공공기관 조합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이고, 함께 막아내야 하는 과제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올바른 운영은 공공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파업은 민영화를 막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망쳐온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투쟁으로 향후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영향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전체 노동자가 함께 임금교섭권 박탈,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산, 민영화로 이어질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투쟁에 나서자!! **노동전선**

시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조	투쟁체계 구축 조직화	9.27.총파업 투쟁	총파업 투쟁(~) 개혁입법 쟁점화	20만 총궐기 입법/예산확보 쟁취 투쟁	입법/예산확보쟁취 총력투쟁
주요 투쟁	△8.15 투쟁 △사드반대투쟁	△9.24.화물연대총회투쟁 △9.27.총파업 △국정감사 대응	△총파업(지속) △노동입법 쟁점화투쟁(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등) △간접고용 노동자대회	△11.12.20만 민중총궐기 △11.12.교육공무직본부 총 상경투쟁 △국회 집중투쟁	△입법/예산확보 쟁취 투쟁 △국회 집중투쟁 △총력결의대회 등

전/해/투 25주년 백서 & 영화 해고자 II 제작모금 및 자료수집

전해투 25주년을 맞아 전해투 백서 발간과 영화 해고자 II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해투 관련 사진/영상/문서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463502-01-384269 이호동
문 의 | 010-3573-8569 교선국장 박예준
이 메 일 | kcturdw@gmail.com

▶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8월 22-23일 정책대대에서
동 지가 결 의 해 주 십 시 오

GIFT SET 광천 재래김

선물하기 좋은 최고급 김 선물세트입니다.
1set 15,000원
5세트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구입문의
김정태 사무장 010-5874-8564
입금계좌
농협 352-0489-6863-33(오수일)

전법기업 아사히에 맞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해주십시오

구미공단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입니다.
연평균 매출액 1조 기업이지만 비정규직에게
9년간 최저임금만을 지급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자 마자 한 달 만에
문자 한 통으로 170명을 해고했습니다.
1년을 넘겨 2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깃발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농축산/어업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보장하라!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폐지하라!
한국정부는 인종차별 정책 중단하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 3권 쟁취! 이주노동자 결 의 대 회

8/21 (일) 오후 3시

수도권
장소 : 보신각 광장
주최 :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동대위, 이주노조
외국인 : 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산·울산·경남
장소 : 부산역
주최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

대구·경북
장소 : 2.28 공원
주최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노총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자 생계자금 마련 재정사업

한제명 홍삼
홍삼·국산산(인삼)·통삼·로향·인삼·인삼
6년근 홍삼농축액 ₩100,000
300g / 1병

한제명
₩50,000
400g (20x20x25)

1200년 전통 진도예향 홍주
한국 역사 속에 있는 순국주(이)의 향수. 진도향미를 향하여 주위를 보십시오.
연술홍주 ₩35,000
400g / 500ml 1병

검정참발홍주 ₩35,000
400g / 500ml 1병

당진백석유미 한과
충남 당진 백석의 유미의 농산물입니다.
특별 만드는 전통한과입니다.
매일발효한과 ₩50,000
매일발효 1종(매일발효) 1종 (1000g)

광천 김
원조 김을 최고급으로
만들어서 찾아와 맛있게 구워 드십시오.
광천 김 set ₩20,000
1세트 (김 100g 100개)

본 수익금과 후원금은
해고자 생계자금과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입문의 010-3211-5397 / 010-8939-6777
입금계좌 국민은행 778801-04-38026 희망연대노조

※ 입금확인 후 주문완료 됩니다
※ 배송비는 무료입니다